국제유가 100달러의 붕괴

국제유가가 연일 급락하고 있어 어디까지 하락할지 주목되고 있다.
국제유가는 2008년 들어 초강세를 나타내 6-7월까지도 배럴당 150달러는 물론 200달러 돌파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7월 중순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갑자기 하락세로 전환된 것은 미국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해 미국의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고, 미국경기 후퇴로 세계경제가 타격을 받아 세계적인 원유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투기자금이 원유시장에 유입된 후 상당한 재미를 봄으로써 더 이상 매력이 없다고 판단해 철수하고 있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여기에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맞아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베이징 인근 제조공장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승용차 운행에서도 홀짝제를 도입해 운행대수를 50% 줄이는 등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일정부분 줄어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110달러 뿐만 아니라 1000달러도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50-60달러 수준까지 폭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최근 서유럽의 경기가 급속히 후퇴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등 세계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서유럽 경제가 후퇴하리라는 것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대출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이 대두됐을 때 이미 예견된 것이기는 하나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설 정도로 급속한 침체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유럽 경제의 침체는 곧바로 아시아 경제의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고 세계경제 전체가 불황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유가 뿐만 아니라 비철금속, 곡물 가격 폭등을 유발하고 세계경제 호황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 인디아 경제도 더 이상 온전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달러화 강세는 국제유가가 초강세를 지속한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가 해소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유가 하락 요인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는 반갑지만 미국경제가 죽을 쓰고 있는 판국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 자체는 역으로 해석하면 세계경제 전체가 이미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듯싶다.
문제는 국제유가 100달러가 무너지고 추가 폭락을 계속해 70-80달러 또는 50-60달러 수준으로 후퇴할 때 석유화학 시장은 어떠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140달러 강세에서 115달러 수준으로 추락함에 따라 나프타 가격도 톤당 1200달러를 넘어선 후 곧바로 폭락해 1000달러 붕괴 일보직전으로 몰리고 있으며, 에틸렌 · 프로필렌은 물론 BTX, 합성수지 모두 3-6주 동안 폭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만약, 국제유가가 100달러는 물론 50-60달러 수준으로 폭락한다면 석유화학제품 가격폭락의 장기화는 물론이고 석유화학 시장 자체가 큰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중동의 저코스트 공세까지 가세한다면 재무상태가 든든하지 못한 석유화학기업들은 파산의 위기를 면하기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이 톤당 1500-1600달러에서 1000달러가 무너지고 결국 500-600달러 수준으로, 합성수지 가격이 2000달러에서 1500달러도 견디지 못하고 1000달러가 무너져 700-800달러 수준으로 폭락한다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지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미국경제의 침체가 서유럽 경제의 후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경제가 일대 혼란에 빠져들 것은 자명하고 석유화학 시장도 대대적인 재편작업에 돌입해 개별 화학기업의 운명을 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의 중국 경제를 주목하는 이유이다.

<화학저널 2008/8/18>